

최악 가뭄... '영산강 4지구 개발' 더딘 걸음

전남 서남부 농업용수 숙원사업
'절끔예산' 22년간 공정률 60%
신안·영광 급수 '0' ...매년 피해
'공기단축' 정부 관심·지원 절실

역대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전남 서남부 권 농업용수 공급 방안으로 추진중인 '영산강 4지구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첫 삽을 뜬지 20년이 넘도록 사업 대상지 대부분의 지역에 아직 물조차 대지 못하면서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 따르면 영산강 4지구 개발은 무안·함평·신안·영광 등 전남 서남부권 일대 1만6,730ha(논 1만40ha, 밭 6,690ha)에 급수관으로 영산강 물을 공급하는 종합개발사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양수장 10곳, 용수로 476km, 조절지 7곳, 배수장 13곳 등 관개·배수 개선·경지정리·발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저수지 등 별도의 용수원도 부족해 상습적으로 가뭄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간척지는 물이 부족한데다 염분 피해까지 확산되면서 일반적인 가뭄피해 눈에 비해 고사 속도도 빠른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첫 삽을 떴지만, 착공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률은 60%를 갓 넘어서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5,69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수장 4곳, 조절지 1곳, 용수로 260km가 설치됐고, 완공된 양수장 4곳(무안, 현경, 목교, 신기)에서 무안·함평 등 관리구역 5,207ha에 1일 최대 70만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게 전부다. 그나마도 지난해 말 컨트론타워인 현경 양수장이 준공돼 영산강 물을 영광·함평, 무안 해제와 운남면으로 보낼 수 있게 됐다. 반면 13곳이 계획된 배수장은 아직 한국도 준공되지 못한 상태다.

더딘 공정은 이른바 '절끔예산' 탓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 2001년 이후 연간 200억원



나무야, 쑥쑥 자라거라 식목절을 맞아 30일 오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분적산에서 열린 식목행사에 참가한 공직자, 주민 등이 나무를 심고 있다. /김태규 기자

씩만 투입되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기대됐다. 하지만, 2020년 480억원, 2021년 420억원 2022년 307억원, 올해 320억원으로 다시 줄면서 사업 역시 정체중이다.

이로 인해 사업 완료 시점과 사업비도 당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개년 계획 7,784억원에서 2027년까지 27개년 계획 9,69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사이 신안과 영광 등 사업지역에 포함된 농민들은 매년 극심한 가뭄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신안에서 벼농사를 짓는 A씨는 "간척지라 아직 땅이 심하게 갈라지지는 않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아예 일 년 농사를 망칠까봐 서둘러 모내기를 했다"며 "하지만 계속 비가 오지 않으면 심은 모마저 갈아엎어야 할 판이다"고 걱정했다.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도 공기 단축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면으로 이어짐** /임재민 기자

혁신도시 숙원 '복합혁신센터' 첫삽

680억 투입 2025년 5월 준공
문화커뮤니티 등 융복합 시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확충의 핵심 현안이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가 시작됐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센터는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 8,832㎡(연면적 2만191㎡)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680억원이 투입된다.

복합혁신센터는 전시, 생활체육, 문화·여가 커뮤니티, 청년 창업지원 등 융복합시설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위한 문화·소통·교류공간으로 조성된다. 1층 전시·세미나실을 비롯해 문화센터·시민

커뮤니티실(2층), 청년창업지원센터(3층), 청소년 문화센터·다목적 체육관(4층), 다용도 체육실(5층)로 구성될 예정이다.

생활체육시설인 실내 수영장은 8레인, 길이 25m로 조성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문화와 여가, 생활체육, 전시, 주민 커뮤니티 등 기능을 골고루 갖춰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정주여건의 핵심 시설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INSIDE NEWS

광주·전남 공직자 재산공개 **4면**
전남대 교수 227명 "배상안 철회를" **6면**
주말& / 김성수의 뮤직썸 **12면**

'전두환 손자' 오월 영령에 무릎 꿇는다

전우원씨 오늘 민주묘지 참배



허리 숙여 인사하는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연합뉴스

광주 학살 주범이자 참회 없이 세상을 떠난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오월 영령 앞에서 용서와 사죄를 구한다. 전두환씨의 직계 가족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7면**

30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전우원씨는 31일 오전 10시께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위치한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를 방문해 5·18 유족과 피해자를 만난다. 이 자리에는 고교생 시민군으로 활약한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를 비롯해 총상 부상자, 폭행·구금 피해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이 자리에서 방문 목적과 심경을 밝히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남의 자리를 가진 후 전씨는 5·18 기념문화센터 인근에 있는 5·18 기념공원 내 추모송화공간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후 전씨는 5·18 단체장들과 함께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는 계획이다.

현화 분향 후 5·18 최초 사망자인 고 김경철 열사와 초등학교 4학년 희생자인 '5월의 막내' 고 전제수군, 시신조차 찾지 못한 행방불명자 묘역 등도 둘러볼 예정이다.

전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자라는 환경과 들어오던 얘기로 인해 (광주에 대해) 좋게 보지 못했던 적이 있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줘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회를 주신 만큼 실수하지 않고 상제받은 분들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찬기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아

우리동네 빵집에서 인공지능 까지!!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 1 창업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정책 수립
- 2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실현하는 공간
- 3 창업을 위한 모든 서비스와 협업 네트워크 연결



창업의 가치를 더해 함께 성장하고, 스타트업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동구창업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서석동)
TEL. 062) 608-3991~3993
FAX. 062) 608-2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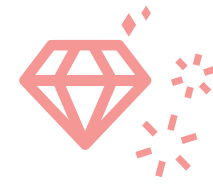
광주주얼리지원센터

주얼리 소공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주얼리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 및 다양한 지원

www.gjewelry.or.kr

- | | | | |
|-----------|---------------------------|-----------|---|
| 1F | · 주얼리 전시판매장
· 주얼리 체험공간 | 3F | · 교육실
· 세미나실
· 바이어 상담실
· 운영사무실 |
| 2F | · 공용장비실 | | |

광주주얼리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62-1 (충장로 5가)
TEL. 062) 608-3994
FAX. 062) 608-2719



- | | | | |
|--|--|--|--|
|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창업교육, 자금상담 등 | 청년창업허브사업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 마을공방 운영사업
공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 | 일자리 공유 카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
|--|--|--|--|